

한진중공업 해군 차기고속정 4척 수주 쾌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대표이사 이윤희)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차기 고속정 4척을 수주하며 특수선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진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의 차기 고속정(PKX-B) 9번함부터 12번함까지 4척을 2천741억원에 수주, 함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차기 고속정 1번함에서 12번함까지 총 12척, 8천억원 상당의 물량을 모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며 고속함정·특수선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 선도함 건조사로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후속함 3척을, 지난해 다시 4척을 추가로 수주해 영도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다.

차기 고속정은 1999년과 2002년 당시 제1, 2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인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한 200t급 함정이다.

승조원 정원 30여 명의 기존 참수리 고속정에 비해 크기와 중량이 증가했지만 자동화된 무기체계를 장착해 승조원 수를 오히려 20여 명으로 줄였다.

차기 고속정의 추진체계는 운영하급 유도탄고속함(400t

급)과 같은 워터제트 방식으로 어망이 있는 얇은 수심의 해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130mm 유도 로켓, 76mm 함포, K-6 원격사격 통제체계, 한국형 전투체계 등을 탑재해 기존 고속정 대비 화력, 명중률 등 전투력을 강화했다. 그야말로 기동 성과와 탐지, 방어 능력까지 대폭 향상된 차세대 전투함정이다.

차기 고속정은 지난해 10월 1척이 해군에 인도된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12척이 모두 인도된다.

해군은 차기 고속정을 향후 운영하급 유도탄고속함과 함께 배치해 최전방을 사수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주된 차기 고속정 12척의 건조사로 선정된 것은 중소형 전투함과 고속함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이라며 "현재 건조 중인 대형수송함 2번함 마라도함을 포함한 각종 함정 건조에 전력을 기울여 영해 수호를 위해 부여받은 방위사업체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❶

